

南南 經濟協力에 關한 小考

—對아세안 經濟協력을 中心으로—

金 仁 竣*

<目 次>

- I. 머리 말
- II. 經濟協力の 類型과 政府次元의 經濟協力方向
- III. 對아세안 直接投資

I. 머리 말

本稿에서는 현재 韓國의 經濟的 與件과 아세안 現地の 經濟的 與件을 勘案한 狀態에서 韓國과 아세안 國家間의 資本協力問題에 對하여 다루고자 한다.

經濟協力は 크게 政府次元에서 實施되는 經濟協력과 民間次元에서 實施되는 經濟協력으로 區分될 수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먼저 第2節에서 經濟協力の 유형을 개괄한 다음 政府次元에서의 對아세안 經濟協力 方向에 對하여 考察한다. 다음 第3節에서는 民間次元에서의 經濟協力중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對아세안 直接投資에 對하여 考察한다. 여기서는 먼저 1.에서 對아세안 直接投資進出可能性에 對하여 살펴본 다음, 2.에서 우리의 對아세안 直接投資現況에 對해서 概觀하고, 3.에서는 韓國의 直接投資 進出方向에 對하여 다루고, 4.에서는 效率的인 投資管理를 爲한 企業의 運用方向에 對하여 다룬다. 마지막으로 5.에서는 아세안 直接投資에 對한 政府의 役割과 政策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經濟協力の 類型과 政府次元의 經濟協力方向

1. 現行 先進國 經濟協力の 類型과 特性

經濟協力は 크게 政府次元에서 實施되는 經濟協력과 民間次元에서 實施되는 經濟協력으로

* 本研究所 資料센터部長,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副教授. 이 論文의 一部는 1985年度 文敎部研究費의 支援을 받아 이루어졌음.

로 區分될 수 있다.

現在 先進國에서 實施되고 있는 政府次元에서의 經濟協力を 類型別로 보면 ① 無償援助(grant aid) ② 技術協力(technological cooperation) ③ 國際機關에 대한 贈與(capital contribution to multilateral organization) ④ 低利의 借款貸與(loan assistance) 등이 있다.

民間次元에서의 經濟協力에서는 ① 直接投資 ② 借款貸與 ③ 輸出信用(export credit) ④ 開途國 유가증권의 取得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民間次元의 經濟協力問題는 그 大宗을 이루는 直接投資問題를 중심으로 다음의 第3節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政府次元에서의 經濟協力問題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위에서 구분한 政府次元에서의 經濟協力の 類型들에 대해, 그 內容들을 說明하던 다음과 같다.

無償援助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援助를 提供한다는 것이나 受惠國은 보통 援助供與國의 財貨를 구입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先進國의 技術協力形態는 a) 訓練(training), b) 專門家 派遣, c) 自願奉仕者 派遣, d) 投資分析팀 派遣(dispatch of survey teams) 등으로 大別된다. 물론 專門家나 自願奉仕者 과정의 경우에는 必要한 裝備(equipments)와 物資(materials)가 함께 供與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技術協力は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政府次元에서의 프로젝트 차관 供與 혹은 民間部門에서의 直接投資 實施에 앞서, 技術協력을 통해서 프로젝트 可能性分析(feasibility study)을 하고, 必要한 技術人력을 訓練, 供給해 주기도 한다.

UN과 같은 國際機關에 대한 贈與 역시 政府次元에 있어서의 經濟協力の 한 유형이 된다. 贈與된 資金은 開發途上國의 經濟問題를 分析하고, 經濟開發計劃을 樹立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된다. 이 경우 開發國의 經濟分析和 開發計劃의 樹立에 있어서 贈與國을 중심으로 技術協力팀이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贈與國은 國際機關이라는 中立의 立場을 띠면서, 關聯 開發國 經濟에 대한 情報를 蒐集·綜合할 수 있고 開發計劃의 樹立段階에서부터 參與할 수 있게 된다. 또한 贈與額 상당부분이 投資分析팀의 人件費로 使用되므로 실제로 贈與國은 贈與額의 상당부분을 회수하게 된다.

長期低利借款은 受惠國의 經濟開發計劃과 關聯된 프로젝트借款(project loans), 國際收支壓迫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이 될 商品借款(commodity loans), 外債壓迫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借款(debt relief) 등으로 大別될 수 있다. OECD 規程上 長期低利借款에는 無償 贈與要素(grant element)가 25%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借款을 長期低리로

供給할 경우에도 必要한 原資材를 借款供與國으로부터 수입하게 한다든지, 프로젝트운영에 必要한 經營技法, 노우하우(know-how) 技術導入 등을 借款供與國에 의지하게 한다든지 하면, 低利의 借款供與에 따르는 無償援助要素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先進國에서 이루어지는 政府次元의 經濟協力の 特性에 對하여 살펴 보자.

이때의 經濟協力の 特性은 첫째, 많은 경우에 있어서 財政支援과 技術支援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技術支援은 民間部門에서의 經濟協力和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 예를 들어 直接投資를 함에 있어 技術人力不足이 장애요인이라면 政府次元의 技術協력으로 이를 제거해 준다는 점 등, 셋째, 財政支援을 交易과 直接 關聯시켜 自國財貨의 輸出增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넷째, 技術協력을 통해서 經濟開發의 計劃段階에서부터 參與하게 되며, 經濟에 대한 면밀한 分析和 必要한 情報蒐集이 자연스럽게 수행된다는 점, 다섯째, 技術協력은 獨自的인 獨立機關을 가지고 獨立的으로 임무가 수행된다는 느낌을 주려고 한다는 점, 여섯째, 訓練(training), 專門家 派遣 등 技術協력은 民間部門의 協력을 얻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效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 등이다.

2. 우리의 政府次元에서의 經濟協力方向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政府次元에서의 經濟協力方向은 第3世界間的 經濟協力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현 여건을 충분히 勘案하여 아세안 國家들이 必要로 하는 部門에서 經濟協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先進國의 經濟協力的 경우에는 그들 國家들이 資本輸出國이므로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資本協력과 技術協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우리의 경우는 85년말 현재 外債가 460억달러 이상이 되고, 현재도 資本輸入國의 立場에 있으므로 現時點에서의 經濟協력은 技術協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國際收支가 계속 均衡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資本協력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長期低利借款을 중심으로 資本協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日本(혹은 美國)의 長期低利借款이 對GNP에서 차지하는 比率정도로 長期低利借款을 供與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長期低利借款은 우리의 進出이 可能한 分野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建設分野 등이 有望分野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資金管理는 輸出入銀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技術協력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나름대로 先進國과 어깨를 나란히 할 分野를 찾아야 할 것이다. 産業化過程이 아세안 國家들 보다 앞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産業化過程 計劃樹立에 있어서 우리가 技術協력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세안 國家들도 앞으로 産業

化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온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며, 또한 産業化 過程에 대한 經驗을 先進國보다는 우리로부터 直接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KDI 혹은 KIET 등의 政府研究機關에 아세안 擔當機關을 附設하여 아세안 國家들의 政府次元 經濟開發計劃機關設立에 積極 參與하고, 經濟開發計劃樹立段階에서 積極 協調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國家들의 開發計劃樹立段階에서부터 參與하게 되면 이들 國家들의 經濟發展을 돕고, 우리 또한 이들 國家에 대한 충분한 情報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經濟開發計劃機關 設立을 이들 아세안 國家들이 원하는 경우, 우리가 必要한 人力資源을 공급하고 先進國이나 國際機關으로 하여금 必要한 財政支援을 담당하게 하여 대상국, 우리나라 그리고 先進國(혹은 國際機關)間的 3者協力關係 方法의 모색도 可能하리라 라고 본다. 또한 政府間 公務員 交流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대關係를 맺어두는 것도 바람직 하다.

한편 技術訓練, 專門家 派遣 등은 政府에서 獨者的인 機關을 지정하여 總括運營토록 하여야 하며, 이 機關은 外務部, 財務部, 商工部, 建設部 등과 유기적인 協助體制를 유지하 여야 할 것이다.

農業關係 技術協力에 있어서는 우리側에서 이를 담당할 집행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혹은 새마을운동본부)을 선정해 놓고 아세안 國家들로 하여금 必要한 財政的 支援을 國際機 關에 요청케하여 三角技術協력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의 農業技術이 다소 앞서 있고 이들 國家들은 새마을운동 등에 대하여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 므로 이와 같은 技術協력은 可能하리라 본다.

現段階에서의 産業技術訓練의 경우는 企業의 訓練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우리가 앞으로 進出 可能한 分野에 대한 人力開發에 치중하도록 해야 한다. 技術訓練所 를 現地에 세워 운영할 경우에는 수혜국이 國際機關으로부터 設立에 必要한 財政的 支援을 確保하도록 유도하고 人的資源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專門家派遣은 이해가 관련되는 企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技術訓練 專門家派 遣 등에 따르는 기업부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으로 상쇄토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병역의 혜택, 政府의 學費負擔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이 들을 그 나라 經濟에 대한 專門家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獨立的 技術協力機關은 長期的으로는 프로젝트타입 技術協力까지 담당할 수 있을 정도 로 能力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타입 技術協력은 우리 經濟가 아세안에 進出

가능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착실히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建設分野가 우리 經濟가 進出하는 데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한다면, 技術協力の 建設分野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차차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受注하는 데 必要的 財源確保(financing)에 대한 연구도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 長期的으로는 共同財政調達(joint financing)에 대한 연구도 이 機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III. 對아세안 直接投資

1. 對아세안 直接投資 進出 可能性

直接投資는 이루어지는 동기에 따라 첫째, 比較優位에 입각한 直接投資, 둘째 資源(原資材 包含) 確保를 위한 수직적 直接投資, 세째, 輸入障壁이나 쿼타(quota) 등의 교역장애 요인에 對處하기 위하여 實施되는 直接投資, 네째, 獨占力, 寡占力 등의 產業組織上的 利點을 利用하여 多國籍企業 전체의 利潤極大化를 위해서 實施되는 直接投資, 다섯째, 技術確保를 위한 直接投資(우리의 경우는 실리콘밸리에의 投資)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합쳐진 복합적인 이유에서 投資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先進國들의 對아세안 直接投資現況을 보면, 日本의 경우는 資源確保分野(raw material base), 日本의 內需, 충족을 위한 低價財貨供給이 可能的 分野, 그리고 投資對象國의 國內市場을 겨냥한 分野에 投資가 주로 이루어졌고, 美國의 경우는 석유분야와 저렴한 勞動力을 이용한 輸出産業分野(low-wage export platform)에 直接投資가 이루어졌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과거의 식민지유대가 남아 있는 분야(plantation 등)와 第3次 産業分野, 그리고 國內市場을 겨냥한 分野에 投資가 重點的으로 행하여졌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先進國들이 상당한 額數의 直接投資를 아세안 國家들에 행하여 기득권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세안 國家들에 대하여 直接投資形態로 進出할 소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第三世界間의 直接投資라는 點에서 先進國에 비하여 유리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아세안 國家들의 경우, 自國經濟가 앞에서 言及한 先進國들에 의해 지배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對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先開發途國의 投資에 對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로 우리는 최근에 産業化過程을 겪었기 때문에 技術이나 製品에 있어서 先進國에 비해 보다 적합한 形態의 것이며, 아세안 國家들의 환경에 적합한 形態로 變化시키기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째로는 小規模市場에 대한 適應度가 높아 需要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제화의 생산에 있어서 先進國에 比하여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經營 및 技術人力에 대한 費用이 先進國의 經營者나 技術者에 대한 費用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費用構造面에서 낮은 製造間接費用支出을 유지하는 것이 可能하다는 點이다.

네째로는 아세안 國家들이 雇傭問題와 國際收支 問題에 초점을 맞추어 輸出指向的이고 勞動集約的인 産業分野의 育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産業分野에서의 直接投資에서는 우리도 先進國과 충분한 競爭이 되리라고 보여지는 點이다.

2. 對아세안 直接投資現況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直接投資는 <表 1>에서와 같이 1985년 12월말 현재, 56件 8,854萬달러로서 全體 海外直接投資額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國家들만 따로 考慮할 때,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58.7%이고,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최근에 크게 늘어나 31.3%로서, 兩國이 對아세안 直接投資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세부적인 사항은 <附表 1> 참조).

對아세안 直接投資의 業種別 構成은 <表 2>에서와 같다. 1985년 12월말 現在 農林漁業(주로 林業)이 3,711萬달러로서 41.9%, 製造業이 4,453萬달러로서 50.3%, 鑛業이 264萬달러로서 3.0%, 貿易業이 56萬달러로서 0.9%, 그리고 建設業이 72萬달러로서 0.8%를 차지한다. 이는 日本의 경우 直接投資額의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되어 있고, 農林漁業에 대한 投資가 극히 미미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韓國의 對아세안 投資는 資源開發輸入을 위한 投資와 製造業分野에의 投資로 대별된다.

1985년 12월말 現在 資源開發輸入을 위한 投資를 보면 投資는 거의 林業分野(3,902萬 달

<表 1> 國家別 投資現況

單位: 千달러

年 度	1968~84		1985		1985. 12.		世界全體에 대한 構成比 (%)	아 세 안 全體에 대한 構成比 (%)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인도네시아	16	50,705	1	1,211	17	51,916	10.9	58.7
말레이시아	14	27,219	3	508	17	27,727	5.8	31.3
필리핀	1	1,000	2	1,009	3	2,009	4.2	2.2
태국	7	2,456	—	—	7	2,456	0.5	2.8
싱가폴	10	4,388	2	50	12	4,438	0.9	5.0
合 計	48	85,768	8	2,778	56	88,546	22.3	100

資料: 韓國銀行, 『海外投資現況』.

〈表 2〉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業種別 直接投資(1985年 12月末 現在)

業 種 別	投資件數	投資金額 (千달러)	構成比(%)
농 립 어 업	9	37,107	41.9
광 업	3	2,641	3.0
제 조 업	21	44,532	50.3
무역업 및 운송	10	560	0.6
건 설 업	10	722	0.8
기 타	3	2,984	3.4
합 계	56	88,546	100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況』.

러로서 全體 投資의 41.8%)에 局限되어 있는 형편이다. 鑛業分野의 경우, 태국에 이루어진 주석광 개발과 아연광 개발에 대한 投資는 本國 企業의 부실과 資金不足으로 조업이 중단된 형편이다. 한편 1981년 5월, 인도네시아의 서마두라지역 共同開發契約을 한 韓國「코데코에너지」는 石油探査에 성공하여 資源開發輸入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듯 하였으나 최근의 급격한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製造業分野에 對한 直接投資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판제조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投資對象國의 國內市場을 겨냥한 投資이다.

둘째, 投資規模가 小規模이다. 最大規模의 投資가 이루어진 分野는 합판제조분야로서 5百萬달러에 이르나, 平均投資規模는 2百萬달러 정도이다.

셋째, 製造業投資는 합판제조, 조미료, 칠근제조, 시멘트, 신발류, 경운기조립, 만년필, 합성수지, 적산전력계, 전기밥솥 등 비교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分野에 投資가 집중되어 있다.

넷째, 금성계전(반도상사)의 적산전력계 製造分野와 현대중공업의 시멘트 製造分野에 대한 進出을 除外하고는 直接投資가 대기업이 아니고 專門化된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點이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進出企業의 出資比率을 보면, 54개 進出企業中 24개 企業이 單獨投資 또는 投資比率이 51% 이상인 合作投資이며, 5개 企業이 50%, 나머지 25개 企業이 50% 미만인 合作投資이다. 따라서 投資比率을 보면 支配投資形態를 취했다고 하겠다.

投資進出에 수반된 우리의 人力進出은 미미한 형편으로 1983년 6월말 현재, 312명(그중 인도네시아가 232명)이 아세안 國家들에 거주하고 있다.

開發投資의 資金調達方法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林業部門投資를 除外하고는 始初現金出資가 거의 전부였다. 林業分野開發에 있어서는 現地金融을 통한 出資나 融資金이 始初投資額

〈表 3〉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투자의 출자비율(1985년 12월말 현재)

業 種 出資比率	資 源 開 發			製 造 業	建 設 業	貿 易 及 運 送	其 他
	林 業	水 產 業	鑛 業				
단독출자(100%)	—	—	2	3	1	5	—
51%~99%	6	—	—	3	4	—	—
50%	—	—	—	2	—	2	1
50% 미만	2	1	1	12	5	3	1
합 계	8	1	3	20	10	10	2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況』

註：미투자 2건은 제외

〈表 4〉 對아세안 資金支援 現況(要約)(1986년 5월 31일 현재) 단위：千달러

	去來 契約額	輸 銀 支 援 額			
		承 認 額	貸 出 額	回 收 額	貸 出 殘 額
인도네시아	298,485	210,406	203,962	52,205	151,757
말레이시아	202,694 ₩3,579백만	112,586 ₩1,718백만	33,823 ₩1,718백만	9,189 ₩1,203백만	24,634 ₩515백만
필리핀	23,134	15,010	12,315	3,944	8,371
태국	5,139	5,099	99	66	33
싱가폴	106,968	62,800	57,264	1,671	55,593
총 계	636,420 ₩3,579백만	405,937 ₩1,718백만	307,463 ₩1,718백만	67,075 ₩1,203백만	240,388 ₩515백만

을 능가함으로써 활발한 開發活動과 더불어 資金調達이 圓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를 除外한 아세안 國家들의 경우, 現地金融을 이용한 出資가 2件에 175.7萬달러, 그리고 現物投資가 2件에 123.1萬달러에 不過하였고 始初投資額 以外の 現地合作先에 대한 대부금은 全無한 形편이다. 參考로 〈表 4〉는 아세안에 대한 韓國輸出入銀行 資金支援現況을 보여주고 있다(세부적인 것은 〈附表 2〉 참조).

資源支援의 대부분은 延拂輸出支援에 應당되었고, 直接投資에 대한 支援은 인도네시아 경우, 대우의 무수프탈산 제조공장 合作투자과 유원건설의 山林開發投資에 대한 支援, 태국의 경우, 금성계전의 적산전력계 제조에 대한 支援, 말레이시아의 경우, 태화공업의 비닐장판 생산시설 지원 등 4件에 金額도 아주 미미한 形편이다.

3. 韓國의 直接投資 進出方向

韓國의 對아세안 直接投資 進出方向은 아세안 各國의 內需市場確保에 重點을 둔 分野, 資源開發輸入을 위한 分野, 그리고 韓國이 比較優位를 잃어가는 資源集約的이거나 勞動集約的인 分野 등 重要 세 分野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內需市場開拓에 重點을 두고 進出하는 경우에는 製品을 그 地域의 구미에 맞게 地方化(localize) 하여야 하며 이때의 進出方法은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國家들의 경우, 經濟가 二重構造의 性格을 띠고 있고, 下部構造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現在 아세안 地域의 中小企業들은 거의 家內工業段階를 벗어나지 못한 형편일 뿐만 아니라, 人的·物的 制約 때문에 經濟의 産業化를 뒷받쳐 줄 수가 없는 實情이다. 또한 中小企業分野에 있어서는 經濟規模에 따르는 제약과 勞動集約的인 技術의 必要性 때문에 우리가 先進國에 對해 충분한 競爭力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中小企業의 確立은 進出한 産業發展의 先決조건이 되므로 아세안 國家들도 바라고 있는 바이다.

이와 같은 中小企業의 進出은 綜合商社의 進出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進出한 綜合商社는 中小企業의 市場開拓에 必要한 情報蒐集, 에프터서비스 등을 담당하여 中小企業과 유기적인 協調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綜合商社는 投資對象國의 交易에도 積極 參與하여 投資對象國의 海外市場開拓을 도와 주어 輸出伸張에 一翼을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現在 아세안 各國들이 內需市場을 目標로 하는 製造業에 대한 外國人投資에 관해서 規制를 強化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産業化過程에서 中小企業의 育成이 必要하다는 點과 雇傭問題 등의 사정을 考慮하여 規制를 하는 데는 限界가 있으리라고 본다.

內需市場 確保를 目標로 할 경우에는 아세안 各國들이 輸入代替를 하려는 分野에 대한 老慮도 미리 하여야 한다. 1985년 현재 우리의 對아세안 輸出은 몇 개의 品目에 집중되어 있어 <表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0大輸出商品이 全體 輸出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分野에 대한 現地の 輸入代替産業建設은 우리의 輸出에 막대한 影響을 미칠 것이므로, 미리 現地投資를 실시하여 여기에 대한 對處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시멘트, 석유화학, 강철, 합판, 제지분야에 대한 投資를 考慮해 볼만 하다.

資源開發輸入分野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林業分野에 局限된 實情이나, 원목의 경우에도 開發輸入比重은 總輸入物量의 10%에 불과한 형편이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現在 우리의 對아세안 輸入의 대부분이 1次產品이며 10大輸入商品이 전체 수입의 73.2%를 차지하여 18億 1千萬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원유가 對 아세안 수입의 44.8%, 원목이 10.4%, 정제석유제품이 2.9%, 천연고무가 5.3%, 당류가 1.8%, 금속의 광석이 1.3%를 차지하고 있어, 資源開發輸入을 위한 投資分野가 아직도 넓다고 하겠다.

資源開發을 위한 海外投資의 경우 아세안 各國의 規制가 강화되고 있는 實情이므로, 이

〈表 5〉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主要輸出品目

單位：千달러, %

상 품 명	SITC	1978	구성비	1985	구성비	1978~85 연평균 증가율
인조섬유 직물	653	96,941	21.0	145,233	9.6	6.7
철강의 피	672	8,558	1.9	60,534	4.0	32.2
철강의 구조물	691	40	0.0	95,132	6.3	203.6
선박	793	1,042	0.2	420,282	27.7	135.6
철강의 판	674	32,946	7.1	45,817	3.0	4.8
비료	562	49,658	10.8	98,588	6.5	10.2
경제석유제품	334	5,086	1.1	52,735	3.5	39.7
케이블	773	11,510	2.5	14,642	1.0	3.5
시멘트	661	10,997	2.4	15,214	1.0	4.7
당류	61	4,308	0.9	500	0.0	26.5
소계	—	221,086	47.9	948,677	62.5	—
총수출	—	461,888	100.0	1,518,651	100.0	18.5

資料：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 1978~85.

경우에는 合作投資의 形態를 취하고 우리의 比重을 5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鑛業投資(주식, 아연)의 失敗原因이 本國 企業의 不實과 資金不足이었다는 點을 명심하여 資源確保를 위한 投資의 경우에는 政府의 支援 아래 大企業이 進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경우 아세안 各國의 規制 強化를 豫想하여 半제품을 生産하여 韓國과 外國에 輸出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가 比較優位를 잃거나, 우리의 對先進國 輸出이 여러가지 規制를 받고 있는 勞動集約的이거나 資源集約的인 輸出産業에 대해서는 自由貿易地域(free trade zone)을 이용하여 投資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전제품이나 타이어 등의 輸出은 現在 우리가 先進國으로부터 여러가지의 規制를 받고 있고, 또한 造船이나 組立家具分野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아세안 國家들에게 比較優位를 잃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産業分野에 進出하여 미리 對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相對的으로 높은 賃金水準 때문에 우리가 比較優位를 잃게 될, 봉제산업, 신발류제조 그리고 纖維産業(textile)에 대한 進出도 考慮할 만하다.

위와 같은 重要 세 분야 이외에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다른 아세안 國家들과의 연결을 위한 貿易業에 대한 投資와 아세안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한 海上運送에 대한 直接投資도 考慮할 만하다.

위와 같은 直接投資들은 合作投資의 形態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도 주식의 소유분을 50% 이하로 낮추어 投資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물론 아세안 國家들이 대

〈表 6〉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主要輸入品目

단위 : 千달러, %

상 품 명	SITC	1978		1985		1978~85 년 평 균 증 가 율
			구성비		구성비	
원 유	333	0	0.0	1,107,679	44.8	—
원 목	247	491,752	62.3	256,436	10.4	-8.9
정 제 석 유 제 품	334	26,785	3.4	71,656	2.9	15.1
천 연 고 무	232	109,076	13.8	130,295	5.3	2.6
당 류	061	35,881	4.5	43,604	1.8	2.8
금 속 의 광 석	287	19,590	2.5	31,386	1.3	7.0
불 휘 발 성 기 림	424	12,010	1.5	63,663	2.6	26.9
반 도 체	776	19,246	2.4	53,933	2.2	15.9
주 식	687	18,026	2.3	16,533	0.7	-1.2
가 공 품	248	732	0.1	35,093	1.4	73.8
소 계	—	733,098	92.8	1,810,278	73.2	—
총 수 입	—	789,834	100.0	2,473,374	100	17.7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統計』, 1978~85.

부분 所有權에 대한 제약을 가하여 100% 完全所有가 不可能하기도 하지만 合作投資(특히 50% 이하의 주식소유)에 따른 長點이 있기 때문이다. 合作投資에 따르는 장점으로서는 投資 對象國의 政治的 不安에 對處할 수 있고, 市場開拓에 있어서 現地 企業人의 도움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外部勢力에 의한 經濟的 支配라는 느낌을 불식시키면서 直接投資에 따르는 危險을 分散시킬 수 있는 點을 들 수 있다. 또한 企業의 擘脫(control)은 주식의 擘脫 수를 所有하지 않더라도 企業經營權契約(management contracts), 技術契約(technology contracts), 輸出市場確保(marketing agreement), 그리고 財政調達周旋(financing agreement)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폴을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國家들은 經濟構造가 補完的이라기보다는 競爭的이다. 따라서 現 經濟條件下에서는 製造業, 農林業, 鑛業 등에 대한 直接投資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貿易業과 金融業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投資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金融業의 경우, 홍콩의 장래가 不確實하므로 싱가포르에 대한 投資가 增大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다른 아세안 國家들과 中共間의 交易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貿易業에 대한 投資 역시 必要하리라고 본다.

直接投資現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地金融을 통한 資本調達이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金融機關이 아세아 各國에 進出하여 現地金融에 의한 資本調達이 圓滑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現地金融機關을 통해 投資에 必要한 資本을 資本輸入國으로부터 調

達하게 하여, 우리는 必要的 人的資源과 技術調達에 초점을 맞추어, 投資對象國, 資本輸出國, 우리나라 三國間의 三角投資方法에 의한 直接投資方法의 모색도 必要하리라고 본다.

4. 效率的인 投資管理를 爲한 企業의 運用方向

韓國의 企業이 아세안 地域에 直接投資를 통하여 進出하는 경우, 企業의 行動은 다음의 두 段階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처음의 段階는 具體的인 投資事業을 選定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對아세안 直接投資 進出可能性, 韓國의 投資現況, 投資環境 등의 問題와 企業의 投資與件, 個別投資의 費用便益分析, 企業의 資本調達能力 등의 問題를 토대로 投資의 規模, 時期, 方法 등을 決定하는 問題이다. 이런 意思決定過程에서 投資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면 投資를 實施하게 된다.

다음의 段階는 投資에 대한 가장 效率的인 管理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效率的인 投資管理를 위하여 企業이 취하여야 할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자.

投資의 效率的인 管理는 投資環境의 變化 속에서 期待收益을 얻으면서도 바람직한 企業 이미지를 投資國에 심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이는 現在의 狀況에 대한 理解와 미래의 企業環境變化에 대한 豫測 및 對備가 있어야만 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效率的인 投資管理를 하기 위하여는 必要的 資料의 蒐集과 分析을 통한 投資環境의 變化에 대한 理解 및 豫測과 投資對象國의 政策變化에 대한 效率的인 對處가 必要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投資環境의 變化에 對備하기 위해 企業立場에서 必要的 資料의 蒐集 및 分析과 政策變化에 대한 效率的인 對處方案에 관한 問題를 다루려 한다.

(1) 資料蒐集 및 分析

企業이 投資環境에 대한 理解와 未來의 變化에 대한 對處를 위해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은 資料에 대한 철저한 蒐集 및 分析이다.

먼저 資料의 蒐集에 대하여 말해 보도록 하자.

資料蒐集에 있어서 가장 強調하고자 하는 點은 可能한 많은 資料를 蒐集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特定資料에서 얻을 수 있는 情報는 特定狀況에는 꼭 必要할지 몰라도, 다른 경우에 대한 理解 내지 전반적인 狀況을 理解하는 데 寄與하는 폭이나 깊이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可能한 많은 資料를 蒐集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情報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可能한 많은 資料라는 것은 대체로 다음의 것들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아세안의 政治, 經濟 및 社會狀況에 대한 分析을 담고 있는 印刷物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Asian Wall Street Journal*이나 *Far Eastern Economic Review* 같은 言論界 發行의 新聞·雜誌 등과 *Journal of Asian Studies* 같은 學術雜誌, 各大學이나 研究機關에서 發行되는 學術論文, 各國政府나 中央銀行의 報告書나 引報用 資料, 國際機構의 報告書 등의 印刷物을 包含한다. 특히 아세안 各國政府의 豫算報告書에서는 各國의 追求하는 政策方向을 바로 읽을 수 있고, 中央銀行의 報告書에서는 必要的 統計資料나 經濟全般에 걸친 情報을 提供받을 수 있다. 한편 世界機構의 報告書(특히 世界銀行의 報告書)에서는 이들 國家經濟狀況에 대한 客觀的인 評價를 求할 수 있다.

둘째로는 企業과 아세안 各國의 政府間의 接觸에서 얻을 수 있는 資料들이다. 아세안 各國政府와의 接觸이란 곧 아세안 各國의 官僚들과의 接觸을 意味한다. 事業에 대한 具體的인 討論이든, 아니면 社會的인 會合에서 가지는 가벼운 意見交換이든간에 直接的으로 政策을 擔當하는 官僚들과의 意見交換은 바로 記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官僚들의 신상이나 特徵 역시 기록하여 企業의 投資擔當者가 交替되는 경우에도 후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로는 企業과 個人들과의 接觸에서 얻을 수 있는 資料들이다. 특히 言論人, 學界나 研究所에 종사하고 있는 教授나 研究員과의 接觸에서 얻는 資料는 매우 중요하다.

言論에서는 지면의 제약과 社會的인 規範의 側面에서 모든 事實을 다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言論 擔當者들은 이런 지면화되지 못한 사실의 이면까지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 나름대로 國政全般에 대한 단기적인 안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接觸에서는 發表되지 않은 資料와 短期的인 狀況變化에 대한 견해를 얻을 수 있다. 반면 學界나 研究所에 종사하고 있는 教授나 研究員들은 各國의 現今의 狀況에 대한 科學的이고 論理的인 理解 및 評價를 내릴 수 있고 아울러 未來의 狀況變化에 대한 長期的인 眼目을 가진 階層들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接觸은 言論人들과의 接觸과는 다른, 構造的이고 科學的인 情報의 蒐集을 可能하게 한다. 言論人, 教授, 研究員들로부터 必要的 資料를 적절하게 신속히 얻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接觸을 항상 緊密하게 維持할 必要가 있다.

네째로는 現地の 專門相談役(consultant)과의 接觸에서 얻을 수 있는 資料들이다. 이들은 具體的인 事業現況이나 장래의 事業의 進行方向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事業과 관계된 直接的인 情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可能的인 合作先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으므로 進出企業의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蒐集된 資料에 대한 分離와 分析에 대하여 다루어 보자.

먼저 蒐集된 資料에 대한 分離方法의 問題이다.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으나, 企業

의 投資環境에 대한 理解와 未來의 變化에 대한 豫測을 위해 資料가 整理·分析되어야 한다는 點을 勘案하면, 資料의 內容이 담고 있는 범위에 따라 分類·整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넓은 범위의 內容을 담고 있는 資料를 가장 높은 順位에 두고, 차차 包括하고 있는 內容이 좁은 순으로 整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一般的인 것들로 부터 具體的인 것으로 內容이 集約되게 하는 長點이 있으므로 必要에 따라 分析의 範圍를 넓히든가 좁히는 데 용이하다. 또한 이런 方式은 體系的인 分析을 하는데 용이하며, 아울러 特定狀況에 대한 分析만이 必要한 경우에는 그 項目만을 찾으면 되는 長點이 있다.

다음으로 分析의 方法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現在狀況은 어떠한가 하는 問題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解答을 구하고, 둘째로는 그러던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問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解答을 求하는 形式으로 分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에 특히 유의할 點은 分析對象과 일치되는 關聯資料들을 確保하는 것이다. 分析對象에 일치되는 關聯資料들을 찾지 못할 경우는 가장 近似한 資料를 찾아서 分析하고, 그 차이를 勘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資料는 一定間隔을 두고 계속하여 發表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계속하여 새로운 資料로 代替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必要하다.

이상의 論議는 資料의 蒐集과 分析에 관한 것이었는데 投資의 規模가 크지않은 企業의 경우에는 必要한 資料를 蒐集·分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경우 一般的인 資料에 대해서는 政府가 研究機關(K.D.I. 혹은 K.I.E.T.등)을 통해서 蒐集·分析하여 企業들에게 提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投資環境變化에 대한 對備와 政策決定에의 接近

資料의 蒐集과 分析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豫測을 正確히 해도 企業이 그와 같은 環境變化를 뒤바꾼다든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平價切下를 단행한다든가, 衡平의 觀點에서 새로운 稅制를 採擇한다든가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그와 같은 變化가 주어진다든가 전제하에서 가장 效率的인 對備를 하는 方法 밖에 없다. 즉 豫想되는 變化에 대한 準備 이상은 없게 되는 것이다. 一例를 들어 評價切下가 단행되는 경우, 強勢通貨의 保有를 서두른다든가 하는 準備는 可能하지만, 平價切下가 단행된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고 分析함으로써 政策의 變化나 그 結果로부터의 防禦가 可能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와 같은 問題에 대한 理解를 完全히 하고 必要한 人力을 적체적소에 配置하여 政策決定者와 接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政策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른 方向에서 進出企業이 追求하는 問題가 理解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

의 方法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견해가 政策의 決定權者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政策의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에게 다른 각도에서 政策이 해석될 수 있도록 理解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相互理解가 可能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各國의 官僚들과 密接한 協調體制를 維持하는 것이 必要하다. 現在 아세안 各國의 官僚들은 다음 세가지 類型으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類型은 最上層의 政策決定者들인데 이들은 대체로 서구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어서 合理的인 討論과 思考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과는 合理的인 關係를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類型은 軍部出身의 政策決定者들인데 이들은 個人的인 信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階層이므로 이들에게는 個人的인 信賴를 줄 수 있는 會合이나 유대關係를 통하여 緊密한 協調體制를 構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째, 類型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官僚階層인데 이들은 강한 文化的 전통속에서 思考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과의 關係는 이들 社會에 대한 충분한 理解와 共感帶를 배경으로 하여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 官僚世界와의 接觸을 잘못하면 이들 官僚들을 腐敗시키려 한다는 投資對象國으로부터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接近方法을 擇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方法은 이들 社會의 독특한 構造를 勘案한 接近方法이다. 아세안 各國의 엘리트들은 서로간의 혼인이나 社會的인 인연에 의하여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進出企業의 現地職員으로 採用한다는가, 이들의 社會的인 모임 속에 같이 가담하여 關係를 깊이 해두는 것도 한 方法이 될 수 있다.

또 한가지 方法으로는 投資를 함에 있어서 合作投資를 하는 것이다. 合作投資를 하면, 現地投資家들은 必要的인 情報를 提供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影響力을 통하여 어려운 국면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 특히 아세안 各國의 政府機關이나 政府投資企業과 合作投資를 하는 경우에는 政策決定에 가장 確實히 接近하는 方法이 될 수 있다.

5. 直接投資에 對한 政府의 役割 및 政策方向

直接投資에 對하여 政府間的 接觸에 있어서는 表面的으로는 中立的인 立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政府는 앞서 言及한 것과 마찬가지로 獨立機關을 指定하여서, 아세안 各國들에

대한 情報을 蒐集하여 各 企業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現在 國際收支與件 때문에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積極심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積極심사는 國際收支與件이 好轉되면 廢止하여 國際投資의 自由化가 이루어지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外換管理法도 손질하여 外換의 自由化와 資本移動의 自由化가 이루어지게끔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危險을 分散시켜주는 方法을 모색할 必要가 있다. 資源確保를 위한 投資의 경우 특히 危險이 크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OECD의 이에 대한 規定 등을 參照하여 海外投資損失을 保護해 주는 保險制度 등을 마련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또한 兩國間의 租稅協定을 締結하여 이중으로 租稅가 賦課되지 않게끔 하는 制度的인 뒷받침이 必要하다고 본다.

輸出入銀行 資金의 一定比率을 海外投資資金으로 할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아세안國家들의 社會間接資本 投資에 積極 協調하며 國際收支가 回復되면 長期的으로 建設·通信部分에 대한 長期低利借款 供與問題를 신중히 檢討하여 民間企業들의 投資活動領域을 넓혀 주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參 考 文 獻

- 楊秀吉, 「太平洋經濟協力體構想과 經濟協力課題」, 韓國政治學會 및 在北美韓國人政治學者會, 『太平洋地域協力體制構想到 關한 研究』, 1983. 8.
- 柳亨煒, 『아세안經濟와 우리의 進出方案』,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研究報告書, 제37호, 1984. 5.
- 全經聯, 韓·아세안經濟界指導者協議會, 『韓·아세안經協便覽』, 1983. 3.
- 全經聯, 「韓國·ASEAN諸國間 經濟協力 動向」, 太平洋經濟圈調查資料[2], 1984. 10.
-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ssues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 Report of the Third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1983. 11.
- Eddy Lee, ed., *Export-led Industrialisation & Development*, Asian Employment Programme, 1981.
- Friedrich von Kirchbach, "Transnational Corporation in the ASEAN region: A Survey of Major Issues," *Economic Bulletin for Asia and the Pacific*, Vol. 33, No. 1, 1982. 6.
- Han, Sung Joo, ed., *Community-Building in the Pacific Region: Issues and Opportunities*,

- ARC Foreign Policy Studies, No. 2.,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81.
- Han, Sung Joo,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Next Phase*,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83.
- Krishna Kumar & Maxwell G. 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 Louis T. Wells & Jr. Herbert F., *Third World Multinationals: The Rise of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81.12.
- Rashid Amjad, ed., *The Development of Labour Intensive Industry in ASEAN countries*, Asian Employment Programme, 1981.12.
- Sueo Sekiguchi, ed., *ASEAN-Japan Relations Investment*,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83.
- Supote Chunanuntathan & Sukrita Sachcha Marga,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with reference to the Specific Role of the Foreign Exchange Rate: The Japanese Case in Thailand," *Economic Bulletin for Asia and the Pacific*, Vol. 33, No. 1., 1982.6.
- Takahiko Haseyama, Akira Hirata and Tōru Yanagihara, eds., *Two Decades of Asian Development and Outlook for the 1980s*, Papers and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at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on March 8~11, 1982, I.D.E. Symposium Proceedings No. 8, 1983.

附 錄

〈表 1〉 우리나라 業體의 對아세안 直接投資(1985年 12月 31日 現在) 單位:千달러

國名	投 資 者	投資許可 年 月 月	投 資 業 種	投資比率 (%)	投資金額
인 도 네 시 아	경 남 교 역	75. 12. 11	산 림 개 발 업	65	650
	대 명 목 제 공 업	80. 7. 7	합 판 제 조	—	1,500
	대 우	85. 7. 22	무 스포 탈 산 제 조	40	1,211
	동 화 기 업	70. 12. 30	산 림 개 발 업	70	7,532
	삼 환 기 업	70. 9. 17	건 설 업	85	150
	{ 서미 울 비 원원 }	{ 75. 1. 7 73. 7. 30 }	조 미 료 제 조	{ 29 20 }	3,185
	선 경	80. 3. 8	합 판 제 조	49	235
	아 주 임 업	76. 12. 31	산 림 개 발 업	70	5,257
	유 원 건 설	83. 3. 29	"	49	15,460
	한 국 남 방 개 발	68. 2. 31	"	49	2,940
	"	73. 8. 8	"	70	1,100
	"	78. 11. 23	"	70	800
	"	81. 6. 5	합 판 및 제 재 목 제 조	49	5,000
	한 니 흥 업	73. 1. 23	산 림 개 발 업	70	3,278
	한 인 니 자 원 개 발	82. 7. 23	유 연 탄 개 발	100	2,200
	한 일 시 멘 트	74. 2. 8	철 근 제 조	80	1,278
	코 오 롱 종 합 건 설	73. 8. 29	건 설 업	70	140
소계	17건				51,916
말 페 이 지 아	대 우	77. 12. 16	총 합 무 역	100	100
	"	81. 12. 23	건 설 업	49	105
	동 국 물 산	81. 2. 25	위 생 고 무 제 품 제 조	65	800
	동 영 물 산	83. 6. 17	그 린 베 니 아 제 조	30	216
	동 원 물 산	82. 2. 24	건 축 자 재 제 조	49	231
	삼 의 가 구	85. 3. 19	가 구 제 조	45	462
	삼 의 주 택	83. 3. 16	건 설 업	49	11
	"	84. 3. 13	"	30	197
	삼 환 기 업	83. 6. 17	"	99.99	22
	쌍 용 중 합 건 설	85. 5. 7	건 설 업	65	26
	선 경 건 설	83. 8. 3	"	66.6	4
	조 선 무 역	83. 3. 28	봉 제 완 구 제 조	100	108
	태 화 공 업	84. 7. 6	비 널 장 판 제 조	30	356
	한 국 중 공 업	81. 8. 11	시 멘 트 제 조	60	25,002
	현 대 건 설	82. 5. 17	건 설 업	30	42
	"	84. 10. 29	"	30	25
	현 대 중 공 업	85. 4. 23	무역업 (플랜트 공사 수주 및 동시설계수출업)	49	20
소계	17건				27,727

國名	投 資 者	投資許可 年 月 日	投 資 業 種	投資比率 (%)	投資金額
필리핀	동양화학공업	78.11.23	백시멘트제조업	25.64	1,000
	대한항공	85.12.30	부동산	—	—
	삼화	"	신발류제조	100	1,009
소계	3건				2,009
태국	고흥명	74.11.19	만년필제조	99.76	1,048
	"	83.5.31	「디스포라이타」제조	40	435
	금성계전	79.11.15	적산전력제조	20	388
	봉명	78.4.27	주석광개발	40	361
	신양진기	80.10.30	가전제품제조	49	44
	정일환	78.10.17	멤납제조	50	100
	화신산업	78.8.21	아연광개발	100	80
소계	7건				2,456
싱가포르	내쇼날프라스틱	81.1.20	합성수지제조	50	924
	대전실업	85.9.30	기타(유조선탱크 청소등서어비스업)	50	—
	동영물산	82.5.21	무역업(목공기계)	50	95
	력키금성상사	78.8.3	종합무역업	100	43
	삼미상사	81.9.17	무역업(철강)	10	35
	삼미종합특수강	85.7.26	무역업(특수강)	50	23
	선경	79.6.4	종합무역업	100	50
	쌍용양회	73.12.31	클링커분쇄	40	2,984
	조양상선	82.6.24	콘테이너 및 해상운송업	33.3	78
	한국마벨	80.3.20	무역업(오디오부품)	100	20
	한국수산개발공사	73.12.31	수산업	2.67	90
	효성물산	81.10.15	종합무역업	100	96
소계	12건				4,438

單位：千圓り

〈表 2〉對아세안 輸銀資金支撥現況(1986년 5월 31일 현재)

國別	資金別	業 體 名	去 來 目 的 物	承認日字	契約金額	承認額	貸 出 額	貸出殘額	
인도	선	코리아 타코마	선 박 4척	79. 9. 10	47, 180	38, 478	38, 478	14, 429	
	선	대우(주)	화물선 2척	79. 11. 24	12, 730	11, 431	11, 431	7, 821	
	플랜	신흥기계	합판공장	80. 4. 22	5, 500	2, 904	2, 904	1, 566	
	선	코리아 타코마	소형선박 2척	81. 4. 1	30, 150	16, 883	16, 883	9, 891	
	플랜	신흥기계	합판공장	81. 12. 9	4, 634	2, 750	2, 750	1, 701	
	선	대우(주)	7, 500DWT 비료운반선 2척	82. 4. 20	43, 950	24, 612	24, 612	19, 279	
	플랜	대우(주)	합판공장	82. 6. 11	11, 862	7, 057	7, 057	5, 293	
	플랜	대우(주)	농약원료 생산공장 설비	83. 6. 1	9, 976	5, 935	5, 935	5, 546	
	기계	삼성물산	직기 120대 및 연사기 80대	84. 3. 27	1, 044	621	621	311	
	선	현대공업	40, 200 DWT B/C (H339)	84. 7. 20	19, 650	11, 004	10, 519	10, 519	
아	선	현대공업	40, 200 DWT B/C (H340)	84. 7. 20	19, 650	11, 004	9, 690	9, 690	
	기계	선원건설	직기 120대 및 관련부품	84. 10. 5	557	277	277	138	
	외부	유엔	인산자원 개발수입	83. 9. 19	22, 000	13, 160	9, 772	9, 772	
	외부	대우에너지	무수프탈산 제조공장 합작투자	85. 11. 5	3, 000	2, 100	848	848	
	주요	코레코	—	85. 12. 30	66, 602	62, 185	62, 185	54, 349	
	계				298, 485	210, 406	203, 962	151, 757	
	말레이지아	철도차량	공업	철도차량 100량	76. 6. 17	₩3, 579백만	₩1, 718백만	₩1, 718백만	₩515백만
		플랜	한국신성물산	년산 20만M/T Cement Plant	83. 2. 28	156, 000	76, 111	9, 135	9, 135
		부품	신성물산	Steel Tyer 10, 000 Units	83. 9. 30	1, 174	657	657	109
		플랜	신성물산	송전설비	84. 2. 7	3, 521	2, 095	2, 095	1, 789
플랜		신성물산	송전설비	84. 2. 17	2, 795	1, 663	1, 668	1, 542	
플랜		신성물산	지중 송전설비 수출 및 설치공사	84. 5. 22	8, 595	5, 114	5, 114	4, 741	
플랜		현대공업	해양가스 생산설비	85. 8. 31	30, 219	16, 634	14, 867	7, 033	
외부		태화공업(주)	비닐장판	84. 12. 21	390	312	292	285	
계					202, 694	112, 586	33, 823	24, 634	
					₩3, 579백만	₩1, 718백만	₩1, 718백만	₩515백만	

國別	資金別	業體名	去來目的物	承認日字	契約金額	承認額	貸出額	貸出殘額
韓	플렌트	금성통신	자동전화 교환 시설 공장	77.12.23	9,740	6,623	6,623	3,469
	플렌트	동양화학	시멘트 공장 합작 투자	79. 5.18	5,000	3,686	3,686	2,896
	기계류	현대종합상사	석탄 하역 설비	83. 1.21	8,395	4,701	2,006	2,005
	계				23,135	15,010	12,315	8,371
대	해외투자	금성계전	적산전력계 공장 합작 투자(증자)	80.12.10	113	78	78	33
	—	럭키금성상사	—	80.12.10	26	21	21	0
	전대자금	T.F. BANK	화학기계 및 자본채	79.12.18	5,000	5,000	0	0
	계				5,139	5,099	99	33
싱가폴	신	현대종합상사	63,000 FT 냉동선 1척	83.12. 9	20,822	11,660	11,660	10,578
	신	대한조선공사	1,018 TEU Container 1척	84. 9. 4	11,626	6,510	6,510	6,208
	신	현대중공업	2,970 TEU Container 2척	84.11. 9	50,400	28,224	28,224	28,224
	플렌트	현대종합상사	산업용 보일러 1기	85. 6.28	520	358	358	72
	신	삼성물산	95,000 DWT급 Crude Product Tanker	85. 8.16	23,600	16,048	10,512	10,512
	계				106,968	62,800	57,264	55,593